

# 독자적 미학 바탕한 조각사의 독립선언

유성웅 엮음 「세계조각사」

미술에 있어 조각과 회화는 당연히 구분되는 의형적 특징이 있지만 미술사를 정리함에 있어 이 둘은 특별한 구분없이 그저 하나의 큰 테두리 안에 아우르려 왔다. 그나마도 여태까지의 미술사라는 것이 회화 중심으로 써어왔고, 그 연대기나 미학 및 이즘의 설정도 회화의 발전사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조각은 그저 부수적으로 그러한 기준에 끼워맞춰진 채 미술사에서 '서자'의 실용을 당해야 했다.

현재 서울시립대·성신여대·단국대 등 대학의 강단에서 조각사를 강의하고 있는 유성웅 교수가 10년여간 모은 도판과 자료를 토대로 엮은 「세계조각사」(I·II)는 그동안 미술사 서술에서 서자 취급을 당해야 했던 조각부문을 하나의 독립된 부문으로 떼내어 독자적인 사관과 미학의 바탕 위에 개별학문으로서 스스로의 역사를 마련한 작업으로 상당한 관심을 끈다.

저자의 머리말에서도 밝히고 있듯 이 책은 비록 '편저'이기는 하나 조각이 탄생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려 3만년에 걸쳐있는 시간을 1100여 개의 컬러도판을 제시하며 흥미롭고도 밀도있게 서술하고 있어 조각을 전공하는 사람은 물론 이 분야를 알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게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입문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보인다.

## 조각의 탄생

국배판(A4) 판형에 각 400여페이지의 울컬러 2권으로 나뉜 이 책의 1권은 I. 고대조각(원시 조각/고대메소포타미아 조각/이집트 조각/에게 조각/그리스 조각/에트루리아 조각/로마 조각/아프리카와 중남미의 조각) II. 중세의 조각(초기기독교 미술의 조각/비잔틴의 조각/로마네스크 조각/고딕 조각) III. 근대조각에의 서곡(르네상스 조각/바로크 조각/로코코 조각/19세기의 조각)으로 구성돼 있다. 2권의 목차는 IV. 현대조각(로댕과 그 이웃들/화가들의 조각/현대조각의 특질/브랑쿠시와 보치오니, 뒤샹/큐비즘의 조각/구성주의와 추상조각/다다와 초현실주의/새로운 조각의 주인공) V. 전후의 조각(전후 유럽의 조각/미국의 전후조각/운동과 빛의 조각/추상과 공간/미니멀리즘의 조각/자연으로 향한 시선/현대를 넘어서/환경과 조각).

조각이 언제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가 하

이 책은 비록 '편저'이기는 하나

조각이 탄생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려 3만여년에 걸쳐 있는 시간을

1100여매의 컬러도판을 제시하며

흥미롭게 서술하고 있어 조각을

전공하는 사람은 물론 이 분야를

알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입문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보인다.

는 문제는 조각사적인 입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해선 명쾌히 밝혀진 것이 없다. 다만, 가장 오래된 조각은 4만년 전쯤 유럽에 출현한 크로마뇽인들이 만든 것(「사비나노의 비너스」이 책 I 권 9쪽)으로 미술사에는 기록돼 있다.

후기구석기시대(4만~1만년전)에 자주 등장하는 조각은 원시조각의 대명사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가 꼽히듯 여성의 다소 과장된 나체의 조각들이다. 이는 원시인들에게 사냥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생식'이었음을 증언하는 대목으로 출산과 다산, 풍요는 절대적 축복이자 일종의 경외감을 일으키는 대상이었기 때문. 그러나 출산에 따르는 영아나 임산부의 사망은 예나 지금이나 '공포'스런 존재로 이같이 '돌의 비너스'들이 많이 제작된 것은 임부의 무사한 출산을 기원하기 위함이라고 편저자는 쓰고 있다.

반면, 신석기시대에 와서도 다수 발견되고 있는 여신상은 구석기시대의 그것과는 다소 틀린, 농경사회로 접어들므로 해서 지모신을 창안해 풍요를 빌었던 「풍요의 여신들」이다. 차이점이라면 보다 사실적인 표현.

「고대조각」의 두번째편인 메소포타미아 조각에서는 슈메르, 아카트, 함무라비, 앗시리아, 페르시아의 조각이 다뤄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앗시리아 조각의 백미로 일컬어지는 「아슈르바니팔 왕의 사자사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19세기 중엽 신화 이상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던 앗시리아의 찬란한 문화가 프랑스인 보타에 의해 발견되고 영국인 레이어드에 의해 「니베네」가 발굴되면서 그 정체를 드러낸 앗시리아는 이 부조 하나로 찬란



한 신화의 역사가 그대로 실제했음을 증언한다.

## 중세의 조각

먼저, 편저는 '고대'는 문화의 황금시대이고, 이를 게르만족이 망쳐버린 암흑시대가 '중세'이며, 다시 고대의 부활이 이루어진 것이 '근대'라는 구분을 불합리적이고 편파적인 사고방식이라고 규정한다. 조각에 있어서도 중세의 로마네스크나 고딕의 짧은 기간에만 하여도 어떤 시기에 못지않은 활발한 조각활동이 있었으며 그 양에서도 엄청나기 때문이다. 다만 중세 조각을 기술하는 것이 재미가 없고 따분한 것은 모두가 같은 테마에 종교일색의 내용에다 대부분이 건축에 부속된 작품들이어서 그럴 뿐이다.

「중세의 조각」을 편저는 1. 초기 기독교 미술 조각 2. 비잔틴 조각 3. 로마네스크 조각 4. 고딕조각으로 나누어 살피고 있는데, 특히 로마네스크 조각은 중세조각품들 가운데서도 고대와 단절시키고 진정한 유럽의 조각을 새로 창조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베네데토 안텔라미」(1178년) 「게로의 십자가」(969~971년) 베로나 산제노 성당의 「청동문장식」(12세기) 이탈리아 모레나 성당의 「천지창조」(1110년) 무아사크 생 피에르 성당의 「목시록의 그리스도」(1125~1130년) 등은 이 시기 대표적인 작품들인데 자유롭고 편안하면서도 때로는 괴기한 세계로 초대한다. 이들은 고전이나 자연주의의 무거운 족쇄를 풀어헤치고 자유로운 창의성을 발휘했으며, 그 위에 초자연적이고 환상적인 세계를 연 종교조각으로 로마네스크에서 이룩된 업적은 사뭇 크다

고 편저는 적고 있다.

## 현대조각의 시작

II 권의 '현대조각' 편은 로댕(1840~1917년)으로부터 시작한다. 로댕이 태어나고 활동한 시기로 따지자면 그는 모네, 르누아르와 동시대인 분명 19세기 작가임에 틀림없지만 그를 '현대조각'의 서장을 여는 첫번째의 인물로 꼽는 것은 "그를 통하여 19세기까지의 과거조각이 청산되고 금세기 조각의 전개가 가능해졌기 때문." 1875~76년 제작된 「청동시대」 도판을 비롯해, 「코가 찢부러진 사나이」(1864년) 「미농」(1865~70년) 「영원한 청춘」(1884년) 「칼레의 시민」(1889년) 「발자크상」(1887년) 등 주요도판들이 실려 있다.

다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작가가 부르델(1861~1929년)과 마이올(1861~1944년). 이들은 근대조각의 거장으로 꼽히는 중요한 인물이었음에도 로댕이라는 세기적인 거목과 동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 따라서 이들이 이뤄낸 「아르카미크 형태로의 회귀」는 어떻게 로댕을 극복할 것이며 어디에 그들의 교두보를 확보할 것인가 하는 고민의 산물이었다.

현대조각의 시작이 로댕이었다면 현대조각의 선구자로 불리는 이는 브랑쿠시다. 이 책에는 그의 대표작들 「무한주」(1937년), 「침묵의 원탁」(1937년) 「공간속의 새」(1919년) 「물개」(1943년) 등이 소개돼 있는데, 그의 작품은 가능한 한 물체의 특성을 지워버리고 단순화시켜 추상에 가까운 형상을 창조해냄으로써 근대와 현대의 맥을 잇는다. 이후 추상조각은 반동겔루, 프로인들리히, 아르프, 곤살레스로 넘어오며 꽃을 피우고, '철'이라는 현대문명의 상징적인 재료가 등장, 새로운 공간의 개념을 가져온다.

2권의 절반 가량은 2차대전 이후 현재까지의 조각품과 조각가를 다루는 데 할애한다. 무어, 햅웨스, 마리니, 자코메티를 비롯해 립시츠, 보트루바, 장 고평, 만추, 뒤뷔페, 아미테이지, 차드윅, 스미스, 크래그, 마르크 디 수베로, 헨슨, 크리스토, 오펜하임, 로버트 머레이 르윗, 킨홀츠 등의 작품과 작품세계가 소개된다.

편저는 이 방대한 책의 말미에 100여권에 이르는 국내외의 참고도서 목록과 작가별 찾아보기 부록을 실어둠으로써 독자들의 충실한 이해에 도움을 준다.

— 정혜옥 기자